

BPA 부산항 홍보용 항만크루저 도입운항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중점홍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기간 부산항 홍보를 위해 항만크루저 안내선이 새롭게 도입돼 동북아 허브항으로서의 부산항 홍보가 한층 활기를 띠 전망이다.

부산시 및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BPA는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의 기간 부산을 찾는 각국의 고위관리와 기업인, 외국 취재진을 대상으로 부산항 홍보를 맡을 안내선 도입을 위해 호주에서 항만크루저로 운항돼 온 카타말란(하부 동체 2개를 나란히 연결한 배) 형태의 37톤급 중고선박을 대상으로 현지 업체와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BPA는 9월말까지 배를 들여와 10월 초부터 부산항을 찾는 국내외 선사, 화주, 해운업계 관계자,

일반시민 등을 태워 항만시설을 둘러보는 항만안내선으로 시범 운항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길이 21.4m, 높이 6.6m 규모에 최고속력 27노트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은 9억 원대로 승선 정원은 118명이다.

이 선박 2층에는 VIP 승객 30여명이, 1층엔 일반승객들이 좌석에 앉아 외부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시범운항 이후 BPA는 APEC 기간동안 부산항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남항과 태종대, 오류도, 북항 컨테이너부두를 둘러보는 코스와 내년 1월 개장하는 신항 코스 등 2개 노선으로 나눠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양경찰청, 경감급 광역해양파출소 시범운영

사고대응시간 단축 및 고품질 치안서비스

해양경찰청은 연안해역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 체계 구축과 현장업무 강화를 위하여 경감급을 소장으로 하는 광역 파출소제를 도입, 오는 9월 부산 신항만, 태안 대천, 여수 녹동, 제주 서귀포, 포항 후포등 5개 파출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 파출소제 도입 취지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신항만 건설 등 치안수요 급증지역에 대한 지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전체 해양사고 75%(589건), 해상범죄 68%(25,200건)가 연안에서 발생하는 점을 착안, 50톤이하 경비정 3척을 광역파출소에 배치, 직접 운용하기로 하였다.

광역파출소에서 경비함정 운용은 경찰서 소재지 중심의 집중관리 방식에서 탈피, 파출소에 함정을 분산 배치하여 평균 80분 걸리던 해양사고 대응시간을 40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들에 대한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역파출소는 경감급을 소장으로 하여 부소장 경위급 3명 등 50~7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정보·안전·수색·구조·해양오염 등의 업무를 3교대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함으로 민원인 편의제공 등 현장중심의 치안활동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로써 해양경찰은 현장중심의 치안체제 개편으로의 더욱 가까워지게 된 동시에 국민들은 경찰관서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